



삼국유사 인문학 여행(遊行)

‘기이’ (紀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이’는 불교 바탕해 인간·세계 인식한 언표

1. ‘황탄하다’는 평가

조선시대의 유자들은 자신의 저술에 <삼국유사>를 인용하면서도 대부분 ‘황탄(荒誕)하다’고 했다. ‘황탄’하다는 것은 “말이나 하는 것이 허황되고 허탄하다”는 것이다. 유교의 명분론이 공고해졌을수록 이런 생각들은 더욱 강화돼 왔다. 송시열의 친척인 송준길의 문하에서 공부한 남구만(1629-1711)은 <삼국유사>의 “말은 요망하고 거짓되고 비루하고 과장돼 애당초 길거리의 아이들도 속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의현(1669-1745)은 “설명이 매우 황탄하다”고 했다. 강재항(1689-1756)은 <삼국유사>는 “황탄하여 가소롭고 변증할 수 없다”고 했다. 안정복(1712-1791)은 “더러 체택할 만한 것이 있지만 역시 허황된 말이 많다”고 했다. 이공익(1736-1806)은 “말이 요망하고 거짓되고 비루하고 과장돼 애당초 길거리의 아이들도 속일 수가 없다”고 했다. 이덕무(1741-1793)도 “설명이 황탄하다”고 했다. 정약용(1762-1836) 또한 <삼국유사>의 세계에 대해 황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주로 단군신화와 역사 및 지리 관련 저작들에서 <삼국유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단군기’의 기록에 대해 남구만은 “단군으로부터 주몽이 탄생할 때까지 거의 2000여 년이니, 설명 하백의 딸이 과연 귀신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먼저는 단군에게 시집가고 뒤에는 해모수와 사통한 것이 기필코 똑같은 여자이며, 앞의 부부와 뒤의 주몽이 반드시 형제간임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안정복도 이익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해본 <고기>한 책은 바로 신라의 이숙(李叔)을 전한 것으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임이다. 대부분 신령하고 괴이한 말들이고 불가(佛家)의 언어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또한 고려의 일언이 전술한 것으로 대개 불가의 문자를 찬한 것이거나 국사(國事)에 안근된 것입니다. 때문에 더러 채택할 만한 것이 있지만 역시 허황된 말이 많습니디”고 했다.

유자들이 <삼국유사>의 지리서로서의 가치는 부분적으로 인정했지만 대부분 ‘황탄’하고 ‘경전에 맞지 않아’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견지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육당 최남선은 <삼국유사> 해제에서 “<삼국유사>의 결점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그 내용이 허탄하고 괴상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실상인즉 허탄하고 괴상한 그 점이 바로 <삼국유사>의 생명이요, 우리가 그로 인해 큰 힘을 얻게 돼 길이 감사드리게 되는 까닭이다”라고 변론하고 있다. 육당은 오히려 ‘허상’과

‘괴상’을 <삼국유사>의 정체성으로 확립했다. 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신이와 영험, 기적과 이적을 받아들일 안목과 여유가 애초부터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얕은 시공 인식 때문만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이해의 부족 때문이었다.

2. ‘기이’의 참다운 의미

‘기이’ (紀異)의 용례는 뚜렷하지 않다. 중국 한 대의 왕충(王充)의 <논衡>(80권)에 ‘기이’ (紀異, 64편)라는 용례가 있다. 하지만 ‘기이’라는 용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삼국유사>의 ‘왕력’에 이은 ‘기이’의 편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이 편속의 조목들을 보면 기이는 ‘기신(紀神異)’의 약칭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서 ‘기이’의 ‘기’ (紀)는 ‘기(記)와 통하므로 ‘기이’는 ‘신이를 기록한다’의 의미로 환원될 수 있다. 일연은 ‘기이’ 편 의 ‘서(敍)에서 ‘괴이(怪異)와 ‘용력(勇力)과 ‘패란(貝亂)과 ‘신이(神異)에 대해 말하지 않은 공자의 가르침과 달리 ‘기이’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가능한 언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고대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국가의 개조 및 개국조들의 신이한 탄생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기록하겠다고 했다. 이 점은 일연이 공자를 성인으로 받들며 그의 가르침을 신주단지처럼 받드는 중국 의 사가들조차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중국 고대국가의 개조 및 개국조들의 신이한 탄생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는 반론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 맥락을 고려해 읽어보면 ‘기이’는 ‘신이를 기술하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조선의 유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사건을 하나의 팩트(사실)로서 기술한 <삼국유사>를 황탄하다고 했다. 그들이 이해하는 황탄의 의미는 <유사>의 시공관과 우주관이 유교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자들조차도 조선의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천왕의 아들이고,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의 아들이며, 신라의 시조 혁거세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색 알에서 나온 하늘의 아들이라는 사고방식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수의 유자들이 <삼국유사>의 세계관을 황탄하다고 여기는 대목은 유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일리(一理)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교적 세계관을 넘어 삶의 실제 국면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할 때 이 관점에는 상당한 무리(無理)가 뒤따르

다. 이러한 무리는 유교와 불교의 시공간의 불일치에 근거한 것이었다. 과거와 미래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현재만을 인정하는 유교의 시간관은 현세 중심의 매우 좁은 시간 인식을 보여준다. 오직 절대자에 의해 피조된 이후의 현재와 미래(내세)만을 인정하는 유일신교의 가르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불교의 시간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과적으로 보는 삼세의 시간 인식을 견지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화두를 들고 보면 삼세의 시간관은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물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음이자 근본적인 물음이기 때문이다.

조선 유학자 “<삼국유사>황탄하다”
육당은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다”

또 일연은 중국의 황제들만이 사용한 죽 음 의식의 문자적 표현인 ‘봉(崩)을 우리나라 왕들의 죽음의 기술에도 사용했다. 즉 <예기>에 나타난 죽음의 기술방식인 황제의 ‘봉’, 제후(왕)의 ‘홍(薨), 대부의 ‘불록(不祿), 사(士)의 ‘졸(卒), 서인의 ‘사(死)와 같은 하이러라기(위계질서)에 대한 기술방식에서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동아시아 역사서의 전형으로 자리잡은 사마천의 <사기>의 편제에서 제시한 황제 중심의 기록 형식인 ‘본기’처럼 삼국시대 우리나라 왕들의 서술에도 ‘고구려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중국과 대등한 역사관을 지녔던 종래 이 땅 역사서들의 주체성을 일연이 몹소 계승한 결과였다. ‘신이’는 비합리적인 사실들, 즉 현실적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삼국사기>가 지향하고 있는 유가 중심주의의 합리적인 사관에 입각해 기술한 것과 ‘다름을 지향한 것’이다. 그 다름은 <삼국유사>의 독자성으로 드러났다.

3. 불교의 시공관

<삼국유사>는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삼세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無始無終) 시간인식을 담고 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명제는 불교 세계관의 기초가 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는 이 말은 모든 존재(현상)는 변화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변화 속에서의 존재는



조선시대 유자들은 <삼국유사>를 허황되고 평했다. 이는 오직 현재만 인정하는 유교의 시간관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시간을 시작도 끝도 없는 무량한 것으로 파악한다. 사진은 무한한 생명을 지닌 무량수불을 모신 부석사 무량수전.

곧 시간 내에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현상’ 혹은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이 언표는 어떠한 고정된 현상이나 존재는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모든 존재는 시간적 존재라는 것이다. 인식의 대상인 시간적 존재는 만들어진[有爲] 존재이며 법칙성으로서의 존재[法]이다. 반면 초시간적 존재는 ‘만들어지지 않은[無爲] 존재이자 시간으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法]이다. 때문에 모든 집착과 그 잠재적인 힘인 종자를 끊어버릴 때 아뢰야식은 전환하며 거기에서 시간과 관련된 지닌 식의 변화는 정지되고 법계와 깨달음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해서 불교에서 시간이란 ‘의식 내적 존재’이며, 이것은 ‘언어적 시간’이자 ‘마음의 시간’으로 해명한다.

불교 유식에서는 모든 존재는 유식에 의한 존재이며 인식의 흐름 속에서 표상되는 존재이다. 때문에 의계에 실재하는 어떠한 객관적 존재는 없다. 시간 역시 의계에 실재하는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인식 내적 존재이다. 그런데 이 식은 ‘인식하기’ [舊唯識]도 하고 ‘진변하기’ [新唯識]도 한다. 그런데 아뢰야식에는 모든 존재를 생성시키는 잠재적 능력(종자)이 있다. 이것을 ‘나’ (자아)라는 것으로 보면 말라시(자아 의식)이 생겨나고, 자기가 ‘오성적으로 인식’ 한다는 형태를 취하면 육식(六識)이 생긴다. 아뢰야식에서는 파악하는 주체와 객체는 아직 종자로서 잠재(潛伏)적이지만, 자아 의식과 육식에서는 그 종자가 현재(現行)화하여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존재가

출현한다. 여기에서 일상의 인식과 선악의 행위가 전개된다. 심층심리와 표층심리의 관계 속에서 보면 아뢰야식의 종자는 원인이 되고(種子生現行), 그것이 현행하여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 성립하는 인식 또는 행위는 그 결과가 된다(現行熏種子). 이때 나타난 인식 또는 행위는 영향력을 지니며 그 영향력은 아뢰야식 안에서 새로운 종자가 된다(種子生種子).

이때 현행하거나 잠복하는 종자 자체는 순간마다 생멸한다. 그러면 결국 과거와 미래를 언제나 내장하면서 순간마다 현재의 것으로 재생하여 이어진다. 이것은 시간을 현재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 현재가 순간마다 변화를 더하면서 비연속적으로 연속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식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단지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이것은 아뢰야식 속의 종자가 어떤 의적인 실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서 현행하고 그 현행된 존재에 대해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가상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체는 유식’임을 체득하는 순간 이와 같은 가상 구조 위에서 성립하는 모든 일상적 시간관념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모든 집착과 그 잠재적인 힘인 종자를 끊어버릴 때 윤회의 근거인 아뢰야식은 전환하며 거기에서 시간과 관련을 지닌 식의 변화는 정지되고 법계와 깨달음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해서 유식의 시간론은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혹의 세계를 마음의 분석을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현실세계의 구조를 비연속적인 언

속으로 파악하고 아울러 시간의 허구성도 밝혀내게 된다. 따라서 시간은 단지 우리의 의식의 스크린에 표상된 허구적 존재이자 언어적 존재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동시에 불교에서는 시간을 순환적 혹은 나선형적으로 인식하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시간은 무명이 일어나듯 윤회연이 일어난다. 때문에 불교의 시간은 무시유종(無始無終)의 무명(無明)으로부터 유시무종(有始無終)의 반야(般若)로 나아가는 것이다. 불교의 공간은 동서남북의 상극적 공간이 아니라 ‘동남서북’의 상생적 공간으로 파악한다. 동시에 지옥-아귀-축생-수라-인간-천상-성문-연각-보살-부처의 십계의 공간으로 해명한다. 그러므로 불교의 우주관은 지구의 천지 모델로 설명하는 유교적 우주관과 달리 지구와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계까지 아우르는 우주 모델로 해명한다.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관을 제시한다. 즉 사람의 머리가 둥글듯 하늘은 둥글고 사람의 어깨가 네모나듯 땅은 네모나서 불교의 우주관은 시공간의 아우른다. 일연은 이러한 시공관 위에서 <삼국유사>를 기술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기이’는 불교적 시공관 위에서 인간과 세계를 인식한 언표라고 할 수 있다.



고영선 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제조방법) 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온수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양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감성책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도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옷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물을 만들었습니다.

▶ 옷에 대한 슬픈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